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장비 반입

국방부가 23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개선 공사에 사용할 공사장비와 자재를 실은 차량을 기지에 반입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성주군 초진면 소성리 진밭교 일대에 공사 인력과 자재 등을 실은 차량 22대가 사드 기지로 진입했다.

오전 8시12분께 경찰과 주민의 충돌이 발생한 지 3시간20여 분 만이다.

이들 차량이 사드 기지로 반입되면서 군 당국은 장병 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숙소·조식시설, 화장실, 오·폐수 처리 설비, 지붕 등 환경 개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드 기지에는 한·미 군 장병 4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위해 장비 반입”

장비 반입되자 주민·반대단체 ‘망연자실’

국방부는 지난 12일에도 장비를 반입을 시도했지만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철제 격자형 구조물에 몸을 고정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자 반입을 취소했다.

공사 차량들은 이날 오전 철곡 휴게소에 집결한 뒤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차량들이 오전 9시30분께 철곡 휴게소에서 기지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 장비 추가 반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과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6시40분께부터 16시간가량 진밭교 일대에서 대치했다.

23일 오전 날이 밝자 경찰은 오전 8시12분부터 수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안전 케터칼 등의 장비를 이용해 그물을 끊고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을 해산했다.

다리를 막고 있던 차량 2대도 차량 운반용 바퀴(포지션 잭)와 견인차를 이용해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는 국가

인권위 관계자 4명이 과전패 상황을 지켜봤다.

상황이 종료되자 소성리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은 채 모두 마을로 돌아갔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우리는 국방부와 끊임없이 타협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책임은 평화 협정을 앞두고 사드를 못 박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시급한 성주기지 근무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장비 반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스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한 남성들 달미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께부터 0시25분께 사이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 뒤 A(44)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귀가를 요구한 A 경위에게 욕설하며 제복 상의를 흔들며 찢는가하면 안경을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전력이 2차례 있는 점으로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장애인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추모(35)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추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10분께부터 25분 간 북구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를 권유한 장애인 B(53)씨의 휠체어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C(44)씨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다.

추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을 잡아 꺾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인 추씨가 ‘행패를 말린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쌍방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김모(2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25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편의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30) 순경의 근무 모자를 찢고 벽살을 잡아 흔든 혐의다.

술에 취한 김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D 순경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 돈사서 불·돼지 228마리 폐사

23일 오전 0시13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새끼돼지 228마리가 죽고 돈사 11개동 중 2개동 450㎡가 타 소방서 추산 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이가성 기자

제주 시내서 중국인끼리 칼부림 1명 사망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1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중국인 A(30)씨가 다른 중국인 B(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45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래주점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공범 유무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0대 상습절도범 시민 도움으로 검거

경찰이 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를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23일 야간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송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50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 들어가 쌀을 훔치는 등 10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훔친 금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추적하던 중 길가에서 송씨를 발견했다. 경찰을 본 그는 곧장 달아났지만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이 던진 나무 막대에 걸려 넘어졌다.

전남 학교 주변 교통위반

유해식품 등 4000건 적발

25개 기관 참여 안전점검

전남도는 지난 한 달 동안 개학 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유해환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법규 위반사례 4000여 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전남도와 시군,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도내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유해시설과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 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1만 3000 건의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또 학교 앞 103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주정차를 하는 양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주민들은 스쿨존에 대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기도 했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장애인 모의투표 체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장애인단체 대표자 업무협의회 후 한 참석자가 투표 보조기구를 이용해 모의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빗길 고속도 차량 전복...다른 운전자들 신속조치 큰 사고 막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지만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 큰 피해를 막았다.

23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께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고서 JC 인근 6.8km 지점 광주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정모(38·여)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부딪힌 뒤 전복됐다.

사고가 난 차량 안에는 운전자 정씨와 정씨의 자녀인 4~5세 연령의 남매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다행히 운전자와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인근에서 차량이 전복돼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였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고 현장에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 때 뒤따르던 1t 화물차와 SUV승용차가 주변에 정차했고 남성 운전자 2명이 사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은 전복 차량에서 탑승자들을 구해 안전지대로 옮겼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지점 후방 50m 지점에서 뒤따르는 차량에 수신호로 사고 사실을 알리며, 2차선 우회통행을 유도했

다.

또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구조한 정씨와 정씨의 자녀들에게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털어주는 등 보온조치에도 신경을 썼다.

이들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사고 현장 수습을 도왔다.

구급차량이 도착해 운전자 정씨 등 탑승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이 이들은 훌쩍이 차량을 몰고 사라졌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 정씨는 가벼운 티박상을 입어 치료 중이고 정씨의 두 자녀도 큰 외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호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